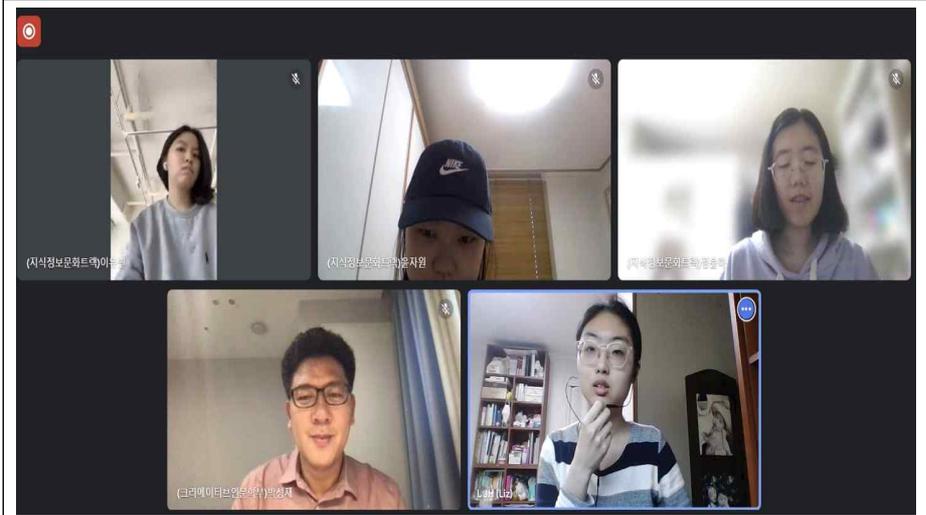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사랑니

1주차	일시	4월 12일 11:00~12:00 구글 미팅(온라인 참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주현(2211039)	O
		이유빈(2211069)	O
		윤자원(2211086)	O
		정윤하(2211040)	O
진도	도서명: 작별인사	진도 페이지: p.1 ~ p.88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이유빈, 윤자원, 정윤하, 박성재(지도교수), 이주현]</p> <p>1. (p17.)진실한 하늘은 무슨 색깔까. 하늘의 진실한 색을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늘의 색을 정의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철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색상 정의의 문제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과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의문을 제기하였다.</p> <p>자원:일단 정의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사실 계속 색이 바뀌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늘의 색이라고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p> <p>유빈:하늘색 생각하기 나름이다. 지금의 하늘도 사람들이 관측한 것 토대로 과학</p>		

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미래에 관측되는 것에 따라 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늘의 색은 스카이블루 색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

주현: 하늘의 색을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학적으로 다양한 하늘의 색이 모두 맞으며, 관점에 따라 진짜 하늘의 색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검은색, 다른 사람은 맑은 하늘, 또 다른 사람은 노을의 색을 진짜 하늘의 색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윤하: 계속 변하는 색을 포함해 인간의 눈으로 본 모든 색이 하늘의 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는 밤하늘을 담지만, 해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으니, 변하는 모든 색이 하늘의 색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 학교의 유용성. 학교가 단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공간이라는 아버지의 견해가 옳은가?

자원: 학교는 일부 '아이들을 맡아주는 공간'의 역할도 하지만, 주로 교육과 사회화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아이들이 모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육과 사회화를 배울 수 있다. 학교는 교육을 받고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현: 학교를 '부모가 일할 동안 아이들을 맡아주는 공간'이라는 정의에 반대한다. 학교는 작은 사회를 체험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교류하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인간 교류와 다양한 시설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윤하: 학교가 아이들을 맡아주는 공간이라면 대학교는 그 의미가 없어지지만, 대학교도 팀 프로젝트, 교우 관계 형성, 동아리 활동, 교수로부터 지식 습득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교의 의미는 단순히 아이들을 맡아주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대학은 성인들이 주로 다니는 곳으로, 맡아주는 공간의 의미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 어떤 의미일까 또는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p7 "머지않아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모두가 너를 잊게 될 것이다" 읽다가)

자원: 약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지내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죽음은 끝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유빈: 인간이 좀 더 현실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있듯이 좀 더 현실을 즐기고, 끝이 오기 전까지 즐기며, 살아가자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다.

주현: 인간은 죽음을 마주할 운명에 있기에 현재의 행복이나 생존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급속한 성장을 가져오는 것 같다. 나에게 있어 죽음은 인생의 끝이자 마무리를 의미한다. 만약 내 기록이 죽음 이후에 남는다면, 그것은 제 삶의 방향과 결말을 평가받을 수 있는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이다.

윤하:죽음은 신체적인 손실보다는 기억과 유산을 통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기억과 유산을 통해 우리는 영원함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죽음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전달하고 이어갈 수 있다.

4. 인간에게 똑같은 기억이 있으면 모두 같은 인물인가?

주현: 동일한 기억을 가진다면 동일 인물인가에 대한 질문은 복잡하다. 기억이 같으면 동일 인물일 수 있지만, 기억 상실로 자아를 잃는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로, 자신이 휴머노이드를 동일 인물로 인식하고 대한다면, 휴머노이드도 동일 인물로 생각할 것이다. 반면, 인간이 휴머노이드를 자신과 다르게 여긴다면, 휴머노이드도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 자의로 만들어진 복제 휴머노이드는 동일 인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만, 타의로 만들어진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주차	일시	5월 3일 11:00~12:00 구글 미팅(온라인 참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주현(2211039)	○
		이유빈(2211069)	○
		윤자원(2211086)	○
		정윤하(2211040)	○
	진도	도서명: 작별인사	진도 페이지: p.89 ~ p.188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이유빈, 녹화용 계정, 정윤하, 윤자원, 박성재(지도교수), 이주현]</p> <p>1. (p.85 참조) 인간은 왜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휴머노이드를 만들게 되었을까? 정말 회사의 기술력 과시만을 위해 그랬을까?</p> <p>이주현 : 인간이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휴머노이드를 만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기술력 과시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발전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꼭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도 발명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본다. 그 예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AI 합성 기술 등의 발명이 있다. 그러나 이를 막는 법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인간에게 해가 되어도 관련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술력 과시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휴머노이드까지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p> <p>정윤하 : 고전적인 얘기지만, '인간이 사실 신을 모방한다'라든가 '인간이 신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퍼져 있다. 신도 아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창조해낸다는 게 어찌보면 인간들의 오랜 소원일 수 있다. 회사의 기술 과시라기보다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인간이 인간만큼 정교한 휴머노이</p>		

드를 만들게 된다면 생명 창조나 자연 이상의 위대함을 갖게 되었다고 착각하거나 오만해질 수 있다. 생명 창조 등의 위대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휴머노이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유빈 : 미국에서 인간의 뇌를 클라우드에 올려 영생을 추구했던 일이 있었다. 결국은 기술력을 과시하고 상품화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주현 : 동의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일한 이유가 아니라 복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는 기술을 만들게 되면 인간은 그로 인해 무언가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는 점이다. 처음 개발 목적이 기술력 과시가 아니더라도 이후에는 본인의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하고 싶어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 또는 개인 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측면에서 이 기술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이후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에서 이러한 기술이 탄생했을 수도 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이러한 기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자원 : 뇌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일은 돈을 벌려는 목적도 있지만, 인간이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종교를 믿고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뇌를 클라우딩하고 휴머노이드를 이용하는 건 영생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박성재 교수님 : 앞서 얘기한 영생,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삶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클론 '선이'도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 휴머노이드가 업무와 집안일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혹은 말동무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TV를 만들고 로봇 청소기를 만든 것처럼, 그것이 진화하여 결국 휴머노이드까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2. (p.69 참조) “이미 많은 인간이 뇌에 칩을 박아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잘린 팔 다리 대신 인공 수족을 장착하여 높은 곳에 쉽게 뛰어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가볍게 들고 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팔, 다리, 뇌의 일부 혹은 전체, 심장이나 폐를 인공 기기로 교체한 사람을 여전히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주현 : 뇌를 제외한 다른 인공 장기를 교체하는 경우 여전히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후천적 사고나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신체 일부를 잃었을 때, 기계나 보조 장치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 혹은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편의성을 개선할 뿐이다. 팔 다리, 심장, 폐 등의 인공 장기는 생명에 위험을 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뇌를 교체했을 때 이를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다. 뇌를 교체하면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같은 삶을 살아왔더라도 어느 순간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라고 본다. 이는 일종의 평행 세계와 같아서, 일란성 쌍둥이처럼 어느 순간 다른 선택을 내리는 순간부터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뇌를 교체하는 순간부터 앞으로의 선택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다른 인물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체한 사람을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뇌를 바꾼다면 여전히 인간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뇌를 교체해도 여전히 생각이나 사상, 자아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유지할 것 같기 때문이다.

윤자원 : 뇌를 제외한 장기는 인공 장기로 교체해도 여전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미 의족 등 다른 보조 장치나 인공 장기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뇌를 기계로 바꾼다면 이는 휴머노이드화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본다.

정윤하 : 의료용이 아니라 단순히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 인공 장기로 교체한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활에 정말 필요해서, 예를 들어, 한쪽 다리가 없어 움직이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들이 의족을 다는 것과 단순히 더 빨리 뛰기 위해 인공 관절을 다는 것은 의도가 다르다. 이러한 의도로 인공 관절이나 인공 장기를 단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뇌를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뇌 일부만 바꾸거나 뇌를 완전히 제거하고 인공 뇌를 넣는 기술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단지 뇌 일부에 칩을 박거나 인공 섬유 관절을 넣는 정도로 이해했다. 그 정도라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도 결국 인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빈 : 인간의 사고 체계와 클라우드에 옮겼을 때의 사고 체계는 같지 않다고 본다. 인간의 기능 중에는 잊어버리는 것도 포함된다. 만약 뇌가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과 같은 체계라면, 인간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상태가 된다. 이 상황에서 그 존재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이라면 잊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존재가 과연 인간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3.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주현 : 나는 인간을 정의할 때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다. 인간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미래를 향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인간의 모든 사고 능력과 판단은 현재에 머물러 있다. 현재 내가 겪는 사건에 따라 미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본다. 또한,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기에 그것이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유빈 : 동물처럼 인간들도 자손을 번식하려 한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자손을 남기려는 본능이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한, 오감을 통해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본다.

정윤하 : 인간(人間)은 사람 인(人)에 사이 간(間)자를 쓴다. 인간은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인간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서로에게 범법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저게 인간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인간답다고 본다.

4.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유빈 :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장거나 구조가 달라서 자손을 볼 수 없다. 이 관점

에서 본다면 인간과 차이가 있어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정윤하 : 인간이 아니더라도 '인간답다'는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아니더라도 사고하는 방식이 인간과 유사하다. 휴머노이드 '철이'가 자신으로봇임을 알기 전까지는 가정을 꾸리는 생각을 해봤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손을 번식하려는 욕망도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주현 : 주인공은 인간답다고 생각한다. 후반부에 주인공이 의식을 컴퓨터 서버에 연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 전까지의 주인공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사고하는 과정,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는 믿음, 인간답게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인간처럼 느끼는 감정을 고려하면 주인공을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자손을 번식하고자 하는 본능이 없더라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 중에서도 자손을 번식하고자 하는 본능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5. 수용소에는 선이와 철이, 민이처럼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는 존재들이 있다. 이처럼 인간과 구분되지 않는 휴머노이드 혹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죽인다면 그건 살인일까?

정윤하 :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다. 휴머노이드가 문제를 일으켜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휴머노이드가 본인을 인간이라고 믿고 살인을 저지르는 예도 있을 텐데, 살인도 본인이 인간임을 알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휴머노이드를 폐기 처리해야 할 때, 전원을 끄고 후일을 위해 기억을 지우면, 이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화풀이로 눈사람을 발로 차서 없애듯이 휴머노이드를 기분이 나빠서 전원을 끄고 기억을 지우면 문제가 될 듯하다. 나중에는 인간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은 인간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를 살인이라고 명명해야 한다. 또한, 전원을 끄는 것까지는 살인으로 치지 않지만, 전원을 끄고 기억을 지우면 이는 새로운 객체가 된다. 그래서 메모리 포맷은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주현 : 이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다. 과거 일본 배경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듯 반려 로봇 강아지를 키우는 이야기였는데,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서 로봇의 AS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로봇으로 치면 병원이 사라진 셈이었다. 로봇이 아프거나 고장 나거나 배터리가 닳아도 더 이상 교체해 줄 수 없게 되어, 사람들이 로봇에 대해 장례식을 치러주기도 했다. 만약 사람들이 반려 로봇을 키우게 된다면, 그들은 로봇에 정을 주고 그것이 실제로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자아를 인간과 비슷하게 정의하는 휴머노이드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자신을 인간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살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든, 흉악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사형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살인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휴머노이드를 죽인다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인간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이는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빈 : 살인 중 청부 살인이라고 본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이 만들었으며 입력값

도 인간이 넣었다. 휴머노이드가 감정을 느끼고 살인을 하는 등 이를 가르친 건 인간이다. 그래서 이는 인간이 청부한 살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윤자원 : 살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간처럼 자아를 가졌지만,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살인 판정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이는 사람이 죽인 존재를 휴머노이드와 사람 중 어느 쪽으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인식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휴머노이드로 알고 죽였다는 상황과 사람으로 인식하고 죽였다는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사람인 줄 알고 죽였다고 하면 살인미수이며, 살인과 차이가 없다고 본다. 물론 법적으로는 휴머노이드를 죽인 것으로 인정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해줘야 한다. 살인해놓고 휴머노이드인 줄 알고 죽였다는 변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박성재 교수님 : 어찌 보면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이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살인이 합법적이었던 시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스파르타에서는 신생아에게 문제가 있으면 강에 던지거나 산에 묻었는데,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휴머노이드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살인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합의 과정에는 윤리적, 법률적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을 보면,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우리는 큰 고통을 느끼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 한다. 과거에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개를 죽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과거에는 다수가 개를 하나의 식용으로 여겼다.

휴머노이드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휴머노이드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는 결국 살인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살인이 옳고 그르다는 문제를 넘어서,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사람들의 의식 체계,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일시	5월 10일 11:00~12:00 구글 미팅(온라인 참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주현(2211039)	○
		이유빈(2211069)	○
		윤자원(2211086)	○
		정윤하(2211040)	○
진도	도서명: 작별인사	진도 페이지: p.189 ~ p.238	
3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윤자원, 박성재(지도교수), 정윤하, 이유빈, 녹화용 계정, 이주현]</p> <p>1. (p.64 참조) 선이는 그 창고를 휴머노이드의 연옥이라고 말한다. 휴머노이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할까? 또한 휴머노이드는 처리될 수 있는 존재일까? 처리된다면 어떤 처리방식이 맞을까?</p> <p>주현: 휴머노이드를 자아를 인정할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처리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나라마다 법과 인식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머노이드가 흔한 시대라면 죄를 지은 휴머노이드에게는 사형 같은 제도가, 부품이 고장난 휴머노이드에게는 안락사처럼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허락될 것 같다.</p> <p>윤하: 죽인다는 말이 맞지 않다보니 처리라는 말이 맞긴 하겠지만 휴머노이드가 작중에 나온 것처럼 아무런 규칙이나 조치 없이 해를 입히다 죽도록 하는 것은 그 처리 방법에 해당될 수 없다. 엄격한 규칙 하에 취급과 처리 방식이 생겨야 할 것이다.</p> <p>유빈: 앞의 두 사람은 기계를 등록과 미등록으로 나눠 공존하는 방식으로 의견을</p>	

말했지만 (잡혀온 휴머노이드 중) 미등록이 많다는 것은 공존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인간이 우선이니 기계처럼 취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휴머노이드라 해도 인간의 편안 삶을 위해 있다.

자원: 처리 없이 생산만 계속되면 포화 상태가 될테니까 처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 있어 기계처럼 대하기보단 기준에 맞춰 안락사 제도 등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p.28 참조)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발달한 사회에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인간의 존재의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주현: 이 미래 세대의 사람들 개개인에 따라 다른 답이 될 것 같다. 인공지능이 발달한 사회라도 개개인이 살아가는 의미는 각자 다 다르게 찾을 것이다. 직업이 아니라면 커뮤니티 등 사회적인 활동 등을 하며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아갈 것이다.

유빈: 인간은 삶의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삶의 의미를 완전히 알아갈 수 없다. 인간은 삶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이런 환경에서도 행복을 찾는 인간들이 인공지능과도 공존해 살아가게 될 것 같다.

자원: 지금 당장 존재 이유나 삶의 의의를 묻는다면 다들 다르고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행복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것 같다. 인공지능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취미나 직업 등을 통해서, 혹은 가족이나 주변인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윤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는 인간마다 다른 답을 가지는데 인간이란 종 하나로 묶어서 대답을 구하기는 너무 포괄적인 것 같다. 삶의 의미를 찾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존재의의에 대해서도 생명에게서 존재의의를 찾기엔 이미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존재의의를 찾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져 대답이 어렵다.

3. 클론의 장기와 인공 기기 중 안정성이 더 높은 선택지는 무엇일까? 본인이 장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현: 안정성이 높은 것이 현재 세대로는 잘 예상이 가지 않는다. 인공 기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다보니 이 안정성의 기준에 따라 대답이 다르겠지만 둘의 안정성이 같다고 생각하면 인공 기기를 원할 것 같다. 클론 장기 이식이 합법화되면 클론을 과생산하고 인권을 도외시 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원: 클론의 존재부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클론의 장기 이식은 윤리적 문제가 클 것 같다. 윤리적 문제를 배제한다면 안정성 자체는 유전자가 같은 클론이 더 높을 것 같다.

윤하: 안정성 면으로만 따지면 기증자가 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클론의 동기가 있다면 안정성이 있을 것 같지만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장기를 잃는 게 당연하다보니 언어가 통하는 존재의 장기를 받는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충격적이라 휴머노이드의 부품이 아닌 치료 목적의 인공 기기를 선택할 것 같다.

유빈: 안정성 위주로 생각했지만 액수가 차이가 크다면 다들 어떤 걸 선택할지 궁

금하다. 예시로 강아지를 들자면 로봇 강아지가 더 비싼 것처럼 클론의 장기가 더 저렴하고 인공 기기가 더 비싸다면 선택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4. 휴머노이드를 등록하는 제도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제도는 어떤 점이 다를까?
(폐기처분 결괏값 제외)**

자원: 주민등록보다는 반려동물 등록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일단 소유권자에 의해 등록이 되고 자율성도 주인에게 있다보니 반려동물 등록제도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다만 우리나라에만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런 등록제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주현: 앞서 말한 두 등록제도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주민등록도 주체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 반려동물 등록제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약이 생기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등록제도는 주민등록제도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윤하: 반려동물 등록제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했다. 찾을 수 없을 때 찾는 것에 용이한 용도가 크다고 생각했다. 휴머노이드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억을 조작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같은 휴머노이드의 기억을 조작해 사기를 치게 된다면 등록번호를 통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제도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4주차	일시	5월 16일 10:00~11:00 상상파크플러스 communication r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주현(2211039)	O
		이유빈(2211069)	O
		윤자원(2211086)	O
		정윤하(2211040)	O
진도	도서명: 작별인사	진도 페이지: p.239 ~ p.305	
토론 내용	 <p>[박성재(지도교수), 윤자원, 이주현, 정윤하, 이유빈]</p> <p>1.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질문</p> <p>이주현 : '(p.69 참조) 이미 많은 인간이 뇌에 칩을 박아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잘린 팔다리 대신 인공 수족을 장착하여 높은 곳에 쉽게 뛰어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가볍게 들고 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팔, 다리, 뇌의 일부 혹은 전체, 심장이나 폐를 인공 기기로 교체한 사람을 여전히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추천하고 싶다. 미래에 기술이 크게 발전한다면 누군가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쓰고자 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 인간의 정의를 되짚어보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정윤하 :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추천한다. 우선, 이 질문은 작품의 다양한 토론을 하기에 앞서 물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의 기본 전제를 알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p> <p>이유빈 : '휴머노이드는 소비할 수 있는 물품인가? 아니면 자아와 인격체가 존재</p>		

하는 존재인가? 종고로 판매한다와 파양한다는 표현은 양립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추천한다. 판매한다는 서술어는 보통 물건에 쓰이는 표현이지만 파양한다는 서술어는 인간이나 동물 등의 생명에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러한 점을 되짚어봤을 때, 우리는 올바른 표현을 찾고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휴머노이드를 생명체로 정의할 것인지 합의하게 될 것이다.

윤자원 :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발달한 사회에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인간의 존재의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에 든다. 이 질문은 현대사회에서도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와 달리 미래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의의를 찾을지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택했다.

박성재 교수님 :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택하고 싶다. 이 질문은 결국 인간의 정의를 다시 하도록 만드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따라서 다른 질문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질문의 답이 정리되어야 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도서클럽 질문

이유빈 : 하나의 질문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고 반드시 인간의 정의를 다시 되짚어봤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였지만, 과연 AI가 개발되고 난 뒤에도 그럴까? 또한 이후에 일어날 많은 윤리적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되려면 해당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주현 : ‘결국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하는 미래가 온다면 이는 자연의 섭리, 과학인가? 그렇다면 이를 막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뽑고 싶다. 현재 인간은 포식자의 위치에 놓여있지만, 이후 AI나 휴머노이드가 발전한 세계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관계가 역전되고 저항하는 등의 현상 또한 자연의 섭리로 봐야 할지, 혹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사고라고 봐야 할지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다.

정윤하 : ‘전부 똑같이 만들어진 휴머노이드가 있다면 그건 본체와 동일 인물로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추천한다. 가장 많이 다른 질문이고 또한 답변이 가장 다르거나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질문을 통해 자아의 정의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윤자원 :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질문은 책을 읽는다면 꼭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의 본질을 가로지르는 질문이다.

박성재 교수님 :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고르겠다. AI나 인공지능, 사이보그 등이 발전한 세계가 온다면 마을의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질문도 인간이라는 정의를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의 일부이다.

3. 책과 관련된 작품 추천하기

이주현 : 소설 파랑 피를 추천한다. 이 책과 비슷한 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과연 인간을 복제한 휴머노이드는 인간 본인과 같은 자아를 가진 존재가 맞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영화 트랜센던스도 이 책과 함께 볼만한 작품이다. 인간의 뇌를 업로드한 AI가 본인이 맞는지에 관한 논의를 잘 다룬 영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가진 AI의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잘 나타낸 작품이기도 하다. 월-E를 추천한다.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가장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정윤하 : 소설 천 개의 파랑을 추천한다. 한성 한 책 읽기에 선정되었던 책이기도 하고 주제에 대해 잘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소설 파견자들을 추천한다.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후반부에 뇌를 업로드하는 묘사가 나온다. 관련 질문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도 클론과 복제 인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같이 보기 좋은 작품이다.

윤자원 :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책을 추천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린이용 상품으로 팔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룬다. 구형 휴머노이드 클라라가 소외되고 방치되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고찰할 수 있다. 같은 작가의 '나를 보내지 마'라는 작품도 함께 추천하고 싶다.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클론이 사는 섬을 배경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 이야기이다.

이유빈 : 아이언맨 시리즈를 추천한다. 다양한 관점(비전, 울트론, 자비스 등)에서 AI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박성재 교수님 : '복제인간 윤봉구'를 추천한다. 아동을 위한 책인데, 자신이 복제 인간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윤리적 문제를 돌아보도록 유도하는 책이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도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인간의 정의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든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이주현 (2211039)	<p>그동안 ai를 주제로 한 많은 소설을 읽었지만,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은 내게 감명 깊은 책으로 남을 것이다. 분명 가볍게 시작한 주제였는데, 다들 소설에 깊게 몰입해서 점점 무겁고 진중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됐다. 나는 이번 토론을 통해 자아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와 법의 충돌 문제에 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팀원과 같은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나와 다른 의견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 중간중간 일정을 잡는 일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다들 끈기 있게 따라와 줘서 고맙다.</p>
	2	이유빈 (2211069)	<p>그동안 독서클럽은 꾸준히 참여해왔는데, 참여할수록 사고가 확장되는 것을 느낀다. 하나의 주제나 질문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좁혀가는 과정이 모두 의미 있었다. 모임에서 다른 작별인사는 ai와 인간의 공존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인생에 얼마나 인간 중심적 사고가 만연한지 알 수 있었다. 문화라는 공통점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복지나 혜택에서 제외한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보고 나는 적어도 이 모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누르고자 했지만 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다. 좋은 팀원인 친구들 덕분에 활동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다.</p>
	3	윤자원 (2211086)	<p>인공지능, 휴머노이드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한 토론이 점차 확대되어 ‘나’와 ‘인간’의 정의에 관한 질문과 ‘인생을 왜 사는가?’, 혹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되었다. 꽤 많은 질문을 제시했지만, 명료한 답을 낼 수 있었던 질문은 적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질문을 주고받고 의견을 나누는 모든 과정이 내 생각을 천천히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좋은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p>
	4	정윤하 (2211040)	<p>재밌게 읽어서 여러 번 다시 읽기도 한 책인 작별인사로 다른 팀원들과 독서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AI나 로봇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기도 해 서로 이야기해볼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혼자서 읽을 때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볼 수 있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새로 배울 수 있다고 느껴진 시간이었다. 다만 할 이야기가 많다보니 더 많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한 점이나 책의 줄거리나 인물에 대한 토론이 부족했다고 느껴져 아쉽다.</p>
	5		